

유적지 순례 101

別將公, 牧使公 휘 得經, 退谷公 휘 乙均



△19세 직균묘소: 안동시 와룡면 도곡동



△19세 을균묘소: 안동시 풍산읍 수곡리 퇴암



△20세 구서묘소: 와룡면 태리 진봉산



△21세 자준묘소: 와룡면 도곡리 재사 뒤



△21세 자관묘소: 와룡면 태리 진봉산



△22세 모 묘소: 와룡면 태리 진봉산

별장공 휘 영정(英正)은 안동권씨 9세 휘 祖 통(通)의 차자로 별장공파조(別將公派祖)이며 長子는 좌윤공파조(佐尹公派祖)이다.

별장공은 호장(戶長)으로서 별장(別將)이고 고려의 정 7품 무관직이며 신축보에 별장으로 나오고 파보에는 삼도별장(三道別將)으로 나온다.

아들은 균계(均桂) 호장으로 無後하고 균석(均碩)은 호장, 봉헌대부 밀직교위(密直校尉)상호군(上護軍)이다. 손(孫) 직성(直成)은 호장의 직을 세습하고 있던중 충렬왕 16년 고려에 집입한 원(元)의 반적 함단(哈丹)을 항군을 이끌고 물리친 전공으로 대상(大相)이 되었다. 함단은 징기스칸의 손자로 수만의 군대가 쌍성(雙城)과 안변을 함락하므로 왕은 강화로 피난하고 이듬해 철령을 넘어 양근을 함락하고 치악성을 공격하였으나 원총합의 선전으로 예봉이 꺾이고 연기현(燕岐縣)에서 러원(麗元) 연합군에 의해 패퇴되었다.

15세(世) 부사공 방(放) 과 목사공 득경(得經)

12세 직성(直成)은 4남을 두었는데 장자 윤해(允諧)의 손자는 부사 방(放)이고 극해(克諧)의 손자는 문탁(文卓)으로 2개 대파를 이룬다.

부사공 방(放)은 중앙장 추(鍾)의 아들이고 문탁은 보승낭장 효윤(孝允)의 아들이다.

목사공 득경(得經)은 방(放)의 아들로 문종 1년(1451년) 증광시 문과 병과에 급제하여 단종 2년 실록에 참군(參軍), 세조 1년 현감으로 좌익원종공신 3등에 녹훈되었다. 세조 3년 예조 좌랑, 세조 12년 합천군수, 성종 2년 선산부사가 되어 4년 치적으로 논상(論賞)되고 사신(史臣)의 논평으로 "권득경은 청렴개결(淸廉介潔)하여 집안이 가난하였다. 금산군수, 선산부사를 역임하는 동안 가는 곳마다 혜정(惠政)을 베풀었으며 후에 성주목사(星州牧使)에 부임하여 입소에서 잘하였다."고 하였다.

15세 보승낭장 문탁(文卓)의 자손들

13세 대상(大相) 극해(克諧)의 손자로 좌우위 보승낭장(保勝狼將)이고 아들은 혁(奕)이다.

16세 판소공 혁(奕)

혁(奕)은 보승낭장(保勝狼將) 문탁(文卓)의 아들로 조산대부 판소부시사(判少府寺事)를 지냈다. 소부시는 궁중의 공예품과 보물을 관장하던 관청으로 판사는 종 3품직이다. 아들은 현감을 지낸 용평(用平)이고 손자는 상호군 천로(天老)이다. 파보에는 가선대부로 나온다.

천로(天老)는 현감공 직균(直均)과 퇴곡공(退谷公) 을균(乙均)두 아들을 두었다.

19세 현감공 직균(直均)과 구서(九叙)의 자손들

현감공 직균(直均)은 혁(奕)의 증손으로 현감 용평(用平)의 손자이고 상호군 천로(天老)의 장자이다. 관직은 종 4품 조봉대부로서 영천군 신령면의 현감을 지냈다. 초배(初配)는 권씨이고 재취(再娶)는 송씨이다. 묘소는 안동시 와룡면 도곡동이며 수정산 남쪽 도곡재사(陶谷齋舍)의 동쪽 산에 있고 방후손 권헌조(權憲祖)가 비문(碑文)을 지었다. 비문에 "비석을 세울 것을 도모해 17세손 정환(貞煥)이 전담하고 15세손 영목(寧穆)이 일념으로 정성을 다한바 내 감격하여 ..."라 하였다.

아들은 현감 구경(九經)과 문과 부사직 구서(九叙), 봉직랑 구종(九種)을 두었고 1녀가 있다.

20세 구서(九叙)는 사직으로 파보에 수의교위(修義校尉) 응무시위사 중령부사직(中領副司直)을 지냈으면 묘소는 안동시 와룡면 태리 진봉산 선비 묘하에 있다. 후사는 진사 자칭(自稱), 봉렬대부 전생서령 자승(自繩), 장흥고부사 자준(自準), 병절교위 자관(自關)이다.

21세 봉렬대부 자승(自繩)

구서(九叙)의 아들로 봉렬대부 선교랑(宣敎郎) 전생서령(典牲署令)이며 묘소는 안동시 와룡면 태리 진봉산에 있다. 계자 유(維)는 장사랑 의종(義宗)과 관선당 윤변(胤彦)이고 윤변(胤彦)은 중종 7년에 출생하여 호는 관선당(觀善堂)이고 수직으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올랐다. 선조 39년에 졸하니 수 95세로서 묘소는 안동시 와룡면 태리 진봉산에 있다. 아들 응생(應生)은 수직으로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이다.

21세 장흥고부사(長興庫副使) 자준(自準)의 자손

구서(九叙)의 삼자로 생몰연대는 미상이고 묘소는 안동시 와룡면 도곡리 수정산에 있다. 동에 권현조가 비문을 지었다.

장자는 강(綱), 차자는 참봉 기(紀), 3자는 참봉 위(維), 4자 유(維)는 중부 자승(自繩)에게 출계하였다. 강(綱)의 아들은 윤종(胤宗)이고 기(紀)의 아들은 참봉 백종(伯宗)과 현감 숙종(叔宗)이며, 위(維)의 아들 후종(後宗)은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이다.

21세 병절교위 자관(自關)의 자손

생몰연대는 미상이고 묘소는 안동시 와룡면 태리에 있다.

아들 모(模)는 군기시 주부로서 통례원 좌통례로 추증되었다. 모(模)의 장자 석충(錫忠)은 어모장군 사직(司直)을 지냈으며 차자는 석충(錫忠)이다.

23세 차자 승지공 석충(錫忠)은 중종 4년 출생하여 천품이 순근(醇謹)하여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 학행으로 추천되어 평양의 기자전 참봉을 지내고 분천의 구로회(九老會)에 들었다. 선조 20년에 졸하니 79세였다. 손자 태일(泰一)이 귀히 되어 승정원 좌승지 경연 참관관으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안동시 와룡면 태리 사니산에 있다.

아들은 회곡공(晦谷公) 춘란(春蘭), 가연공(佳淵公) 춘계(春桂), 가은공(佳隱公) 춘무(春茂), 가천공(佳川公) 춘혜(春蕙), 부사공 춘려(春麗)이고 3녀를 두었다.

춘란(春蘭)은 다음호에 게재한다.

24세 가연공(佳淵公) 춘계(春桂)는 호가 가연(佳淵)이고 중종 39년에 출생하여 초학을 유일재 김언기에게서 배우고 퇴계(退溪)의 문인이 되어 강학(講學)에 전념하였으며 학행으로 추천되어 내시교관(內侍敎官)이 되었다. 사적이 도산 문인록에 실려 있고 광해 12년 졸하니 수 77세이다. 아들 태일이 귀히 되어 후에 자헌대부 이조판서(吏曹判書)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로 추증되었다. 연려실기술(鍊硯室記述) 18권에 사적이 있다. 아들 동산공(東山公) 태정(泰精)은 선조14년 출생하여 백제 참관 태일과 더불어 재예와 학문이 백중하다고 하였다. 학행으로 추천되어 승의랑을 받았으나 출사치 않고 향리에서 부모를 시양하고 문장이 능하여 백부 춘란의 가정을 지었다.

24세 가은공(佳隱公) 춘무(春茂)는 잠심정정(潛心靜正)하고 양신이정(養神怡情)하여 경사에 박학(博學)하였으나 은거하였다. 학행으로 추천되어 공조좌랑이 되고 후에 공조참의로 추증되었다.

24세 가천공(佳川公) 춘혜(春蕙)는 명종 9년에 출생하여 선교랑으로 창원교수가 되고 선조 30년 졸하였다.

24세 춘려(春麗)는 명종 11년 출생하여 수직으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고 인조 13년 졸하니 수 80이다. 묘소는 안동시 안막동 언둔곡 응봉산 아래에 있다.

20세 구종(九種)은 봉직랑이고 1995년 갈매재 뒤 독주산에 설단하였다. 구종의 아들 자상(自常)은 통덕랑이고 손 영통(永通)은 훈원원 판관으로 연산군 10년에 응궁현감이 되면서 응궁으로 이거하여 와룡면지에 사적이 있다.

19세(世) 퇴곡공(退谷公) 을균(乙均)

호는 퇴곡이고 관직은 영동정(令洞正)이다. 고조는 문탁(文卓)으로 좌우위보승낭장(保勝狼將)을 지냈고 증조는 혁(奕)이며 조부 용평(用平)은 김교군 기감으로 양구현감을 지냈다. 부 천로(天老)는 가선대부 도어령동지상호군(都黎領同知上護軍)이다.

공은 파보에 태종 4년에 출생하여 대동보에는 높은 학행으로 사람의 추앙을 받아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증직되었다고 하며 파보에는 가선대부 퇴암영모사에 봉안되었다고 나온다. 김정언이 지은 봉안문에 삼암선생 문집과 단산세고(丹山世稿)에 상재되어 있으니 사당을 세워 향사를 올리며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하였다.

공은 어려운 때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풀고 공업이 후세에 드날렸다 하여 수시택민(需時澤民)으로 안동 퇴암의 영모사(永慕祠)에 배향되었다. 공은 성종 2년에 88세로 졸하여 묘소는 영모사 남쪽 백호(안동시 풍산읍 수곡리 퇴암533)라 한다. 구한말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 내부협판(內部協辦)으로 추증되었다. 아들은 반(半), 전(月典), 이(月貳), 음동을 두었다.

반(半)은 세종 8년에 출생하여 통덕랑이 되고 세종 16년 졸하니 수60이다. 묘소는 안동시 풍산읍 수곡리 퇴암의 약수암 선교고모 남서쪽 합림이다. 계자 숙(淑)은 세종 28년이 출생하여 통정대부이고 연산군 10년 졸하였다.

전(前)의 직은 파보에 부사직이라 하였다. 묘소는 풍산읍 오미리 아미산에 있다. 아들 건은 전력부위(展力副尉)이다.

이(貳)는 통찬이고 묘소는 안동시 풍산읍 수곡리 퇴암 약수암에 있다.

아들 밀(密)은 참봉이다. 음동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이며 다른 기록은 없다. 아들 숙(淑)은 백부 반(月半)에 출계하였다.

이(貳)의 손자 숙경(叔經)은 중종 4년에 출생하여 호는 단구(丹邱)이고 집경전 참봉을 지냈다. 선조 10년 69세로 졸하니 묘소는 안동 산상 지구촌중산에 있다.

(자료제공:권진량, 사진:권기덕, 김수 권영목 고문, 편집:죽헌 권경석)



△22세 영통 묘소: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산335



△22세 숙경 묘소: 남후면 단호리 후산



△23세 석충 묘소: 와룡면 태리 재사 뒤



△23세 석충 묘소: 와룡면 태리 사니산



△24세 춘계묘소: 와룡면 태리 사니산 서쪽



△24세 춘혜 묘소: 와룡면 태리 사니산 서쪽